

좋은 일자리·안전한 일터 조성...광주 노·사·정 뭉쳤다

시·한노총 광주본부·광주경총·광주노동청 한마음 결의대회 상생노동 환경 조성·산재 예방 등 협력키로...플로깅 행사도

광주지역 노·사·정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한마음 결의대회를 열고, '좋은 일자리'와 '안전한 일터' 구축 등을 통해 침체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와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광주경총, 광주노동청 등 지역 노사정 관계자 100여명은 12일 무등산국립공원 증심사 입구에서 노사정 한마음 결의대회를 열고 상생 협약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대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정신을 이어받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안전한 일터 조성, 불합리한 노사 관행 해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한국노총은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

축, 근로자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하고 노사관계 발전에 노력하기로 했으며, 광주경총은 합리적인 임금체계와 적정한 근로 시간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적 예방체계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광주시와 광주노동청은 공정한 법 집행과 행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 상생의 노동환경 조성을 돕기로 했다.

이들은 협약이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져 지역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안전하고 좋은 일터가 더 많이 만들어지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결의대회 뒤 참석자들은 무등산 환경보호를 위해 증심사 주변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행사도 진행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 상생의 광주형 일자리를 만든 저력이 있는 도시"라면서 "지역 청년과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일터 조성에 노사정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민선 8기 들어 전국 최초 산단 근로자 조직 지원사업 '간편한 아침끼', 하남산단 작업복 세탁소 서비스 지역 확대, 산단 노동자 휴게 시설 설치 지원 등 노동자 복지 확대와 주거비 확대·근로복지기금 조성 등 공동복지프로그램 지원 확대, 광주형 일자리 인증기업 발굴 및 지원 등 다양한 노동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시는 또 노동환경 안전예방 실천은 물론 사회적 관심 확대와 현장 위임요인 자율 개선 분위기 확산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 실천, 시민과 함께하는 3대 분야(교통사고·자살·산업재해) 사망자 제로화 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2일 무등산국립공원 증심사 입구에서 열린 '광주지역 노·사·정 한마음 결의대회'에 참석한 강기정(왼쪽 세번째) 광주시장과 양진석(왼쪽 두번째) 광주경총 회장 등 관계자들이 공동선언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지난 11일 고병일(가운데) 광주은행장과 임직원들이 순천시 조곡무로급식소를 찾아 삼계탕 나눔봉사활동을 펼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무료급식소 배식 봉사활동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 11일 순천시 조곡동의 조곡무로급식소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활동에는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임직원 20여명, 정병희 순천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이 동참해 어르신들에게 전복삼계탕 200인분을 대접했다.

삼계탕 배식 후에는 떡과 주전부리, 부채 등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무더위에 취약한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번 배식 봉사활동이 어르신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나눔 봉사의 기업문화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매년 여름철 광주와 목포, 순천 등 지

역 노인복지시설을 찾아 보양식을 대접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또 어르신전용점포로 빛고을건강타운·오치동·학동출장소를 운영하고,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디지털 금융시대에서 소외되기 쉬운 고령층 고객을 배려하는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동곡농협, 금융사기 예방 감사장 받아

동곡농협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해 광주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동곡농협에 따르면 동곡농협은 최근 대출신청을 위해 금융청구를 방문한 한 고객의 대출금 사용 용도에 이상을 감지하고 지급을 지연시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수사결과 이 고객은 스미싱 문자를 통한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무이자 대출대출을 위한 비용 및 상환자금으로 타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송금하고 추가 현금 인출을 위해 동곡농협을 찾았다가 직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추가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이 고객은 "동곡농협 직원이 정확히 상황파악을 하고 신속히 대처해 준 덕분에 추가 전화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동은 동곡농협 조합장은 "주기적인 직원 교육과 피해 사례를 공유하여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주담대 급증...가계대출 잔액 162조 '사상 최대'

규제완화에 주택구입·전세수수료 증가...금융당국 "투기로 인한 과열 우려 수준 아나"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 등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4개월 연속 늘었다.

이에 따라 은행 가계대출 역시 3개월 연속 증가, 잔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아직 주택시장 투기수요로 인한 과열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6월 말 기준 162조3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9000억원 증가했다. 잔액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전달 대비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4월(+2조3000억원) 증가세로 돌아선 뒤 5월(+4조2000억원)과 6월까지 석 달 연속 증가했다.

특히 6월 가계대출 증가 폭은 2021년 9월(+6조

4000억원)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컸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났다. 6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금 수요 확대, 입주 물량 증가, 전세자금대출 증가 전환 등으로 7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증가 폭은 2020년 2월(+7조8000억원)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대였다.

주택담보는 올해 들어 2월(-3000억원) 반짝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3월(+2조3000억원)과 4월(+2조8000억원), 5월(+4조2000억원), 6월(+7조원) 등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주택담대 중 전세자금대출은 4월(-1조7000억원)과 5월(-6000억원)까지 7개월 연속 줄다가 6월(+1000억원) 증가세로 전환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6월 1조1000억원 감소, 2021년 11월(+5000억원) 이후 19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했다.

기타대출은 5월 가정의 달 소비, 여행 등과 관련한 자금 수요가 늘어나 감소 폭이 500억원에 그쳤

지만, 이러한 계절요인이 소멸되면서 6월 다시 확대됐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담대 증가 배경에 대해 "특례보증자리론 공급,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이 더해져서 작년에 부진했던 주택 거래량이 연초부터 늘어나고 있다"면서 "주택거래량 증가는 2~3개월 시차를 두고 은행 주택담대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에는 은행 신용대출이나 비은행 주택담대 등이 함께 늘었는데, 아직은 이러한 동반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6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3조5000억원 증가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대출항목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6조4000억원 늘어 잔액 증가 폭이 4개월째 확대됐다. 앞서 5월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3조6000억원이었다.

/연합뉴스



시가 요리해요 삼성전자 '비스포크 오븐'에 AI 비전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카메라 식품 인식' 기능을 선보인다. 조리물을 넣고 도어를 닫으면 AI 비전 인식 기술이 간편식의 종류와 수량을 인식해 최적의 조리 알고리즘을 자동 설정해주는 기능이다. 삼성전자 모델이 '비스포크 오븐'에 적용된 '카메라 식품 인식'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전남도, 호주 시장개척 수출상담 기업 모집

19일까지 온라인 접수...10개 기업 통역·항공료 등 지원

전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해 '2023년 호주 시장개척 수출상담' 참가 기업을 오는 19일까지 온라인으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전남에서 제품을 제조·생산·유통하는 중소기업으로 전남도수출정보망(www.jexport.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10개 기업을 선정해 구매자 발굴, 상담장 입차, 통역을 전액 지원하고 항공료는 50%를 지원한다.

호주는 핵심 광물 주요 생산국으로 영어권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시장이다. 또 호

주 정부는 경기 부양 및 고용 확대를 위해 노후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 수요를 확대하고 있어 전남도는 이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유망 품목은 전기차, 충전기, 폴리염화비닐(PVC) 바닥재, 화물자동차, 김치(건강식), 색조 화장품, 음료, 버섯, 차량용 라이트 등이다.

신원근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호주 수출 상담이 전남 중소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원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74.72(+12.23)
↑ 코스닥	879.88(+1.15)
↑ 금리(국고채 3년)	3.704(+0.001)
↓ 환율(USD)	1288.70(-5.00)

산업인력공단 광주본부, 중기 HRD 연수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허서혁)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중소기업 HRD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광주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와 AI대학원 이용규 교수가 강사로 나서 중소기업 담당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Chat GPT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다룬 예정이다.

허서혁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디

지탈전환 및 AI 발달에 따라 Chat GPT 등의 신기술 습득을 통해 광주지역 중소기업의 가치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 HRD 담당자 연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에서 선착순 150명 무료로 신청 가능하다. 문의 062-970-1781. /박기용 기자 pbboxer@kwangju.co.kr